Spot Issue

Vol. 2012-O-05 (2012.06.7)

해외경제연구소 산업투자조사실

유로존 위기 관련, 국내 수출영향 및 주요 산업별 하반기 전망

1. 유로존 위기가 국내수출에 미치는 영향

□ **유로존 재정위기 확대 및 유럽경제 침체 가능성 증대**

○ **1) 그리스 디폴트 및 유로존 탈퇴 우려 증폭, 2) 스페인 뱅크런 등 구제금융 가능성, 3) 유럽 각국의 지속적 신용등급 하락**

○ IMF는 **금융리스크에 대한 정책 대응이 미흡할 경우** 재정-금융 부문 간 악순환 및 금융권의 급격한 디레버리징으로 **유로존 경제는 최대 4%, 세계경제는 약 2% 정도 추가적으로 위축**될 것으로 분석함

□ **유로존 사태 악화시 국내 수출은 전체적으로 약 6% 정도(약 355억달러) 추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됨**

○ 해외경기 변동에 대한 수출 탄력성을 분석한 결과 **세계경제 성장률이 1% 감소시 우리나라 전체 수출은 약 3% 감소**하는 것으로 나타남

- 유럽경제는 세계경제의 약 14% 차지하고 있어 유럽경제 부진 및 수입수요 둔화로 미국 및 중국에 직간접 영향 불가피
  ※ 미국경제는 유로존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고용지표가 악화되고 있음
  ※ 중국의 수출위축으로 한국의 대중국 자본재 수출 감소가 예상됨

○ 위기 악화시 2012년 수출은 전년대비 약 0.7% 증가한 5,593억달러 기록 전망

- 정부(지경부)는 당초 2012년 수출을 전년대비 7.2% 증가한 5,950억달러로 전망

경기변동	지역별 수출	1차 연도(%)	2차 연도(%)	3차 연도(%)	4차 연도(%)	2-4차 연도 평균(%)
세계경제 성장률 1% 하락시	한국의 대세계 수출	-3.03	-2.22	-1.99	-2.05	-2.09
미국경제 성장률 1% 하락시	한국의 대미국 수출	-2.17	-0.78	-0.84	-1.05	-0.89
EU경제 성장률 1% 하락시	한국의 대EU 수출	-4.03	-2.99	-2.95	-3.01	-2.98
중국 대세계 수출 1% 하락시	한국의 대중 수출	-0.20	-0.26	-0.24	-0.24	-0.25

자료 : 산업연구원

※ 2011년도 대EU수출액 557억달러, 대미수출액 1,480억달러, 중국 수출액 1,897억달러(자본재 1,081억달러)

2. 주요 산업별 하반기 전망

가. 선박

□ **유럽 재정위기, 선복량 과잉 등의 영향으로 상선수주의 극심한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LNG선과 해양설비 위주의 수주가 이어짐**

○ 2012년 4월까지 수주량은 전년동기대비 54.9% 감소한 252만CGT, 수주액은 전년동기대비 53.7% 감소한 106.2억달러

○ 해양설비 등 해양부문도 예년에 비하여 좋은 실적을 이어가고 있으나, 전년동기대비 수주량은 56% 감소하여 지난해보다는 다소 부진

□ **2012년 총수주량은 전년대비 약 48% 감소한 7백만CGT, 수주액은 전년대비 약 30% 감소한 337억달러 전망**

○ 하반기에도 상선부문이 호전될 가능성은 적으며 유럽 재정위기 사태의 전개 과정에 따라 금융경색, 수요 감소 등으로 오히려 감소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전망

○ 상선의 수주 부진은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LNG선, FPSO 등 고가의 해양설비, 일부 중소형 탱커 등의 수주가 기대됨

○ 시황하락과 선박금융 경색에 따라 금년도 **선박수출액은 전년대비 약 15% 감소한 480억달러** 수준으로 예상

나. 플랜트

□ **4월까지 플랜트 수주액은 전년동기대비 30.7% 감소한 123.7억달러 기록**

○ 4월까지 수주는 지난해 12월 158억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계약체결에 따른 일시적 부진으로 보이며 현재까지 유로존의 영향은 없음

□ **2012년 총수주액은 전년대비 약 20% 감소한 515억달러 수준 전망**

○ 향후 유럽재정위기의 심화에 의한 자금조달 차질과 이에 따른 프로젝트 지연이 아시아와 중남미 지역 수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

○ 지난해의 해양플랜트 수주 규모가 워낙 크고 4월까지 해양 수주 감소가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금년도 수주감소가 불가피할 전망

다. 태양광 및 풍력

□ **2012년 하반기 태양광시장은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**

○ **2012년 태양광시장은 전년대비 21% 증가**한 34.7GW가 설치될 전망되며, 하반기 태양광 수요도 양호할 것으로 예상

○ 2012년 하반기 태양광시장은 유럽재정위기 영향보다는 유럽 이외의 일본, 미국, 중국 등의 수요 확대가 태양광시장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

□ **2012년 하반기 태양광 기업들의 실적들은 여전히 부진할 것으로 예상**

○ 태양광 수요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**공급과잉 현상이 지속되어 하반기 국내 태양광 주요 업체들의 실적은 크게 반등하기 어려울 전망**됨

- OCI사는 2011년 1분기 56%에 달했던 영업이익률이 2011년 4분기에는 7%대로 하락한 상황

- 태양광 모듈업체들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, 생존한 기업들의 경우 향후 매출 및 수익성이 개선될 전망

○ 국내 태양광 기업들의 프로젝트 개발부분으로 진출이 확대되고 있어 태양광 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국내 금융수요는 차츰 증가할 전망

□ **풍력산업은 2012년 하반기 이후 미국시장의 정책적 불확실성으로 성장세가 조정 받을 가능성이 있음**

○ 미국의 세금공제 제도(PTC)가 2012년 만료될 예정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하반기 풍력시장은 위축될 가능성이 있음

※ PTC(Production Tax Credit) : 풍력발전설비업체에 kWh당 ¢2.2의 세금감면

○ 그러나 인도, 중남미를 중심으로 풍력수요가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세계 풍력산업의 성장세는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

□ **2012년 하반기 풍력터빈 업체간 경쟁 격화 등 터빈가격 하락압력 지속으로 국내 풍력터빈업체들의 2012년 터빈수주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**

○ **업체간 경쟁격화로 성능 및 가격 측면에서 모두 열세**인 국내 터빈업체들의 가시적인 터빈 수주 계약 체결은 하반기에도 쉽지 않을 전망

○ **중국 터빈업체들의 공격적인 해외진출 전략**은 우리나라와 같은 후발 업체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음

라. IT

□ **1분기 IT 수출, 전년동기 대비 5.7% 감소한 353.3억달러**

○ 유럽 재정 위기 지속, 중국 경기 둔화 우려 등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반도체·디스플레이 단가 개선 지연 등으로 연속 3분기 전년 동기대비 감소

- 반도체는 연속 4분기, 디스플레이 패널은 연속 5분기 수출이 감소했고, 휴대폰도 해외생산 증가로 7개월 연속 수출량 감소

□ **'12년 IT 수출, 전년 수준인 1,560억달러대 기록할 전망**

○ 상반기 다소 부진했던 **IT 수출은 하반기에는 개선**돼 전년 수준인 1,560억달러 내외의 수출을 기록할 전망

- 하반기를 기점으로 **D램 가격이 회복**하고, **디스플레이 수급이 개선**되는 한편 스마트폰, 시스템반도체 등 하드웨어+소프트웨어 융합형 제품의 성장으로 점차 수출은 개선될 전망

마. 자원개발

□ **세계 해외자원개발 투자규모는 2010년 이후 빠른 증가세를 보이며 2012년 석유·가스 업스트림 부문 투자액은 전년대비 10% 증가한 5,990억 달러 추정**

○ 석유가스 E&P 투자액은 고유가 등에 힘입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

○ 세계 석유·가스 개발 부문 M&A 거래규모는 2008년 금융위기로 침체된 이후 회복세를 보이다가 2011년은 고유가에 따른 자산가치 상승 부담으로 전년대비(1,972억달러) 대폭 감소한 1,400억 달러 기록

- 최근 유럽재정위기 등으로 M&A 거래가 일시적으로 위축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석유·가스 부문의 M&A 거래는 지속 증가할 전망

□ **2011년도 우리나라 기업의 투자액은 101억달러로 추정되고 있으나, 2012년에는 유럽 재정위기, 자원개발 공기업 부채비율 증가 등에 따른 투자 위축 등으로 다소 둔화될 가능성**

○ 2011년 이후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투자 지연 등으로 투자 증가세가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